

<서평>

주옹-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Paul Joüon, T. Muraoka 저,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lxii+880쪽

김동혁*

1. 한국 구약학계의 어른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는 김정우 교수가 학계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주옹 신부와 무라오카 교수(Paul Joüon and T. Muraoka)의 *A Grammar of Biblical Hebrew*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¹⁾ 영문으로 838쪽(lxvi+772쪽)에 이르는 방대한 문법서를 우리말로 다시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어로 히브리어와 구약을 가르치는 평자의 입장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마 한국의 모든 구약학도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주옹-무라오카의 문법책은 100여 년간 개정된 *Gesenius' Hebrew Grammar*²⁾에 버금가는 역사를 가진다. 주옹 신부의 *Grammaire de l'hébreu biblique*³⁾는 1923년 처음 출간된 후 불어판 자체로 매우 훌륭한 성서

*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구약학

1) Paul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ev. Engl. ed., Subsidia biblica 27 (Rome: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2) 게제니우스(Wilhelm Gesenius)의 *Hebräische Grammatik*은 1812년 할레에서 처음 출간된 후 1909년까지 독일어 28판이 출간되었다. 지금 많이 사용되는 영역본은 독일어 28판을 번역한 1910년에 출간된 영어 2판이다.

Wilhelm Gesenius' Hebräische Grammatik, completely revised by E. Kautzsch, 28th ed. (Leipzig: F. C. W. Vogel, 1909); Wilhelm Gesenius, *Gesenius' Hebrew Grammar*, edited and enlarged by E. Kautzsch, A. E. Cowley, trans., 2nd Engl. ed. (Oxford: Clarendon, 1910)를 보라.

3) Paul Joüon, *Grammaire de l'hébreu biblique* (Rome: Institut Biblique Pontifical,

히브리어 문법서로 평가되어 왔다(xxvi, 이하 쪽수는 『성서 히브리어 문법』을 따름). 무라오카 교수는 이를 1991년 영어로 출간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히브리어 학도들이 이 문법서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었고(영어 초판, 이하 JM¹),⁴⁾ 2006년에는 JM¹의 오류를 수정하고 2003년까지 새로이 출간된 자료들을 증보하여 2판(이하 JM²)을 출간하였다(xxxiii).⁵⁾

무라오카 교수는 불어판을 개정·번역하여 JM¹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했다. 첫째, 거의 모든 단락에 각주를 새로 달고 본문을 다시 쓰고 내용을 생략하거나 삽입하였다. 둘째, 1920년 이후에 출판된 연구 성과들을 다뤘다. 무라오카 교수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그 논의가 현대 히브리어로 쓰인 출판물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월키와 오코너(Bruce K. Waltke and M. O'Connor)의 책⁶⁾과 비교할 때 확실히 우월한 점이다(xxvii-xxviii). 이런 과정들 속에서 JM¹은 불어판보다 그 양이 30%가량 확대되었다(xiv).

2006년의 JM²이 JM¹에서 발전된 점은 JM¹ 이후에 출간된 중요한 히브리어학의 성과들을 논의하고 포함시킨 것이다.⁷⁾ 주옹 신부는 자신의 책이 중급 교과서로 사용될 것을 의도했던 데 반해 무라오카 교수는 JM²이 온전한 고급 문법책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다. 실제로 JM²는

1923).

4) 무라오카 교수의 영문 초판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Paul Joüon,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translated and revised by T. Muraoka, vols. 2, Subsidia biblica 14/1-2 (Rome: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91).

5) 각주 1.

6)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0).

7) JM¹과 JM² 출간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학문적 발전 중 JM²에서 무라오카 교수가 다루지 않은 영역은 텍스트 언어학(text-linguistics), 혹은 담화 문법(discourse grammar)이다. 이 연구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히브리어 동사를 잘 이해하려면 절 단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무라오카 교수가 이런 방향의 연구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은 그가 보기에 “어떤 언어에서든 실제로 말할 때(speech)는 오직 하나의 동사만으로도 문법적으로 탄탄하고 독립되며, 완전한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xxxiii-xxxiv).

고급 문법책으로 사용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각주에 인용된 풍부한 참고문헌 덕이다. 또 JM¹의 경우는 주가 매 쪽 아래가 아닌, 매 단락 아래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의 학도들이 보기에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JM²는 명실상부한 각주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읽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JM¹에 관해 저자 색인과 성서 외 문헌 자료들에 대한 색인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는데,⁸⁾ JM²에서는 저자 색인이 새로이 추가되었고 고전 문헌 색인(index of passages)에 우가릿 문헌, 아마르나 문헌, 사해 두루마리, 히브리어 비문들, 랍비 문헌들 등 성서 외 문헌 자료들도 포함되었다.

2. 『성서 히브리어 문법』(이하 JMK)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책을 열면 독자는 민영진 박사, 장영일 장신대 총장, 왕대일 교수의 추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 여섯 개의 서문을 차례로 읽게 된다. 한글 번역본 저자 서문(무라오카, 2012년, 우리말과 영문), 한글 번역본 역자 서문(김정우, 2012년), 불어판 저자 서문(주옹, 1923년), 영어 번역본 서문(무라오카, 1990년), 영어 번역 수정본 서문(무라오카, 1992년), 영어 번역 개정본 서문(무라오카, 2005년)이 그것이다. 여섯 개의 서문으로 독자는 JMK의 긴 노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인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라오카 교수가 한국의 신학도들을 만난 계기를 이야기한 부분이다. “내가 2003년 2월과 3월에 한국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나는 20세기 초반 일본이 한국의 국민들에게 끼친 엄청난 불의와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참회하겠다는 뜻으로 자발적인 교육 봉사를 하고자 하였다. 어느 날 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나의 한국 친구들과 함께 기쁨으로 추수할 날이 오기를 사모한다고 말하였다. 이 문법책[=JMK]은 그 열매 중 하나이며 내가 지난 수년 간 김정우 교수와 함께 강도 높게 함께 일한 결실이

8) Francis I. Andersen, review of Paul Joüon,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trans. and rev. by T. Muraoka, *JBL* 112 (1993), 124.

다”(xiv-xv).⁹⁾

본문은 서론(1-18쪽), 1부 철자법(19-75쪽)과 음성론(76-113쪽), 2부 형태론(114-382쪽), 3부 구문론(383-714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의 주요 내용은 히브리어 문법의 정의, 셈어족에서 히브리어의 위치, 성서 히브리어의 역사, 히브리어 문법의 역사이다. 1부의 첫 부분인 철자법의 주요 내용은 자음 문자와 그 발음, 모음 부호와 그 발음, 슈바와 악센트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부호들에 관한 것이다. 1부의 음성론은 자음 변화, 자음 중복, 브가드크파트의 마찰음화, 후음들, 반모음들, 음절 등을 다룬다. 2부 형태론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정관사와 지시·의문·관계·인칭 대명사에 대해 다루고(117-129), 2장은 동사의 시제(tenses), 시상(aspects), 활용[conjugations, 즉 빈야님(בנינים)] 등과 불규칙 어근을 가진 동사의 변화 등을 다룬다(130-254쪽). 3장 명사에서 는 명사의 형태를 구분하고, 성, 수, 절대형과 연계형, 명사의 변화를 다루고, 덧붙여 수사(數詞)에 대해서도 다룬다(255-355쪽). 4장 불변화사 편은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를 다룬다(356-382쪽). 3부 구문론은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 시제와 법에서는 시제와 시상, 권유형(cohortative), 지시형(jussive), 명령형을 다룬다(383-482쪽). 2장 격에서는 대격, 속격, 동격(apposition)을 다루고(483-530쪽), 3장은 전치사를 다룬다(531-542쪽). 4장은 명사를 다루고(543-580쪽), 5장은 지시·의문·관계·인칭 대명사를 다룬다(581-599쪽). 6장 일치에서는 형용사의 일치, 인칭 대명사의 일치, 동사의 일치, 인칭의 일치를 다룬다(600-612쪽). 절을 다루는 7장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첫 부분은 절 일반을, 둘째 부분은 여러 가지 특수한 절들(실명사절, 관계절, 상황절, 부정절, 의문문, 감탄절, 기원절, 단언절, 저주와 맹세의 절, 시간절, 조건절,

9) 또한 민영진 교수가 인용한 무라오카 교수의 편지를 참조(viii-ix). 추천사, 한글 번역본 저자 서문, 한글 번역본 역자 서문에서 번역 과정에 얽힌 뒷이야기들을 들 수 있다. 「Canon&Culture」 6:2 (2012) 부록에도 『성서 히브리어 문법』 출판 기념회에서 전한 민영진 교수, 무라오카 교수, 김정우 교수의 축사 및 강연문이 들어 있다(233-254쪽).

목적절, 결과절, 인과절과 설명절, 양보절, 반의절, 예외적, 비교절, 분리절)을 논의한다(613-705쪽). 마지막 8장은 접속사 바브를 다룬다(706-714쪽). 부록은 패러다임, 색인, 참고문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715-880쪽), 색인은 총 다섯 가지로 히브리어 단어 색인, 주제 색인, 용어 사례집, 성구 색인, 저자 색인으로 되어 있다. 주제 색인의 표제어는 영어와 우리말이 함께 나오는데 표제어의 순서는 영어 알파벳을 따른다. 용어 사례집은 영어로 된 주요 용어에 대한 우리말 번역을 정리한 것인데, 무라오카의 영문판에는 물론 없다. 성구 색인은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우가릿 문헌, 아마르나 문헌, 사해 두루마리, 히브리어 비문들, 랍비 문헌들의 색인도 포함한다(그러므로 JM²의 ‘index of passages’는 JMK에서 ‘성구 색인’보다는 ‘고전 문헌 색인’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참고문헌 목록은 44쪽에 걸쳐 있다.

전체 3부 중 1부와 2부는 박미섭 박사가 초역했고, 3부 구문론은 김정우 교수가 번역했다. 김정우 교수는 박미섭 박사의 초역을 다듬는 일도 맡았다(xviii). 페이지 수에서 볼 수 있듯, 본문 714쪽 중 구문론이 절반에 육박하는데(332쪽) 구문론에 대한 이러한 자세한 논의는 (JM¹이 출간된) 1990년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다. 스미스(Mark S. Smith)는 JM¹에 대한 서평에서 성서 히브리어 구문론에 관한 논의가 1990년에 출간된 월키와 오코너, 니카치(Alviero Niccacci)의 책들을 통해 큰 진전이 있었지만, 절과 문장의 구문에 대한 무라오카의 구문론은 그들의 논의보다 훨씬 더 자세하다고 말한다.¹⁰⁾ 마지막으로 JMK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JM²에 없는 일본어에 대한 논의가 조금 추가되었다는 점이다.¹¹⁾

10) Mark S. Smith, review of *A Grammar Biblical Hebrew*, CBQ 55 (1993), 117. Cf. Waltke and O'Connor, *Introduction* (각주 6); Alviero Niccacci, *The Syntax of the Verb in Classical Hebrew Prose*, W. G. E. Watson, trans., JSOTSup 86 (Sheffield: JSOT, 1990).

11) T. Muraoka, “My Perspective and World of Biblical Hebrew,” 『Canon&Culture』 6:2 (2012), 247. 또한 JMK의 주제 색인 중 “Japanese”를 보라(765쪽).

3. JM¹과 JM²에 대해서는 서구학자들이 몇 편의 서평을 발표하였다.¹²⁾ 예컨대 앤더슨(Francis I. Andersen)은 JM¹의 철자와 음운, 책 전체의 구성, 언어학 용어의 사용 등에서 개선될 점 몇 가지를 지적한 후 “위와 같은 지적에도 주옹의 *Gbb(i.e., Grammaire)*는 모든 면을 고려할 때 최고의 고급 성서 히브리어 문법서로 남을 것이다. 또 무라오가는 분명 번거로웠을 이 일을 훌륭하게 해냄으로 영어는 읽을 수 있으나 불어는 읽지 못하는 모든 히브리어 학도들에게 빛을 남겼다.”라고 평가했다.¹³⁾

JM¹과 JM²에 대한 평가는 서구학자들에게 맡겨도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우리말을 읽을 수 있는 평자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김정우 교수의 우리말 번역에 관한 논의일 것이다. 지면의 제약으로 책의 여러 면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남은 지면을 통해서는 김정우 교수가 번역한 주요 용어의 우리말 표현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려 한다. 한국 히브리어학에서 JMK의 중요성과 의의를 생각할 때 이 용어들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논의는 용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른다.

1) 772, 776쪽(용어 사례집)의 aphaeresis ‘첫 번째 자음 탈락’, apocopation ‘끝 자음 탈락’, syncope ‘중간 자음 탈락’ → (각각) ‘어두음 탈락’, ‘어미음 탈락’, ‘어중음 탈락’으로. 성서 히브리어에서 위 세 가지 현상은 대개 자음(즉, 글자)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aphaeresis, apocopation, syncope 등은 여러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언어학에서는 탈락되는 소리가 자음이냐 모음이냐를 가리

12) JM¹에 대한 서평으로는 Mark S. Smith, review of *A Grammar Biblical Hebrew*, CBQ 55 (1993), 116-119(각주 10)와 Francis I. Andersen, review of Paul Joüon,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JBL 112 (1993), 123-126(각주 8)이 있다. JM²에 대한 간략한 서평으로는 David J. Reimer, review of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ev. Engl. ed., *ExpTim* 121 (2010), 476을 보라.

13) Francis I. Andersen, review of Paul Joüon,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126.

지 않는다.¹⁴⁾ 따라서 aphaeresis, apocopation, syncope를 각각 ‘어두음 탈락’, ‘어미음 탈락’, ‘어중음 탈락’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¹⁵⁾

2) 772쪽(용어 사례집)의 apposition ‘동격’ → ‘병치’로. 이 주제를 다루는 JMK의 단락(§131)을 읽어 보면 apposition을 ‘동격’으로 번역해도 무리는 없다. 그러나 영어의 apposition은 그 자체로는 [주격(nominative), 대격(accusative), 속격(genitive)에서와 같은] ‘격’이라는 의미가 없이 그냥 ‘옆에 둠’(라틴어의 ad + positio)이라는 의미이므로 ‘병치’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¹⁶⁾

3) 132쪽의 cohortative ‘권유형’ → ‘청유형’으로. 우리말에서 ‘권유’라고 하면 보통 자신이 아닌 남에게 하는 것이다. 나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의 cohortative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럴 경우 차라리 사전에는 없더라도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종종 쓰이는 ‘청유형’이 더 나을 듯하다.

4) 772쪽(용어 사례집)의 conjugation ‘활용’, ‘어형 변화’ 이것은 김정우 교수의 번역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 JM에서 히브리어 ‘빈얀’을 ‘conjugation’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에 관한 것이다. 언어학에서 conjugation은 김정우 교수의 번역 그대로 동사의 어형 변화를 가리킨다. 우리말 문법에서 동사의 변화는 ‘활용’이라 칭하므로 ‘어형 변화’, ‘활용’은 ‘conjugation’의 적절한 번역이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빈얀(갈, 니 팔, 피엘, 히필 등)은 동사 변화, 활용과는 다르다. ‘빈얀’의 핵심 개념은 동사의 행위의 방향(능동, 수동, 재귀), 행위의 양(한 번이나 여러 번), 행위가 규정하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작위, 사역 등)가 동사의 **형태**로

14) 실제로 JMK에서 인용된 apocopation의 예들[예컨대, $\text{מִיָּמִי} > \text{מִיָּמִי}$ (77쪽)]은 끝 자음이 탈락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미의 모음이 탈락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 어근의 h는 자음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실제로 탈락된 소리는 세골이기 때문이다.

15) 덧붙인다면 apocopation과 syncope의 어미를 통일할 것도 제안한다. 즉, apocope와 syncope, 또는 apocopation과 syncopation으로 어미가 통일되면 독자는 두 현상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6) 영어에서 ‘격’을 표현하는 말들은 모두 ‘-tive’로 끝나는 데 반해 apposition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apposition을 ‘동격’으로 번역하는 것을 재고하게 만든다.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말이나 인도유럽어에서 찾기 힘든 개념이다. 따라서 칼, 니팔, 피엘, 히필 등을 우리말로(또는 영어로) 옮길 때는 히브리어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빈얀’, ‘빈야님’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

5) 10쪽의 Dead Sea Scrolls ‘사해 사본’ → ‘사해 두루마리’나 ‘사해 문서’로. ‘사해 사본’이라고 하면 성경의 ‘사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콤파 문서 중에는 성경 사본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영어 표현을 따라 ‘사해 두루마리’나 ‘사해 문서’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6) 24쪽의 emphatics ‘강세음’, ‘강세 자음’ → ‘강조음’, ‘강조 자음’으로. \mathfrak{b} , \mathfrak{v} , \mathfrak{p} 등을 JM^1 과 JM^2 는 emphatics라 부른다. 이것을 JMK에서는 ‘강세음’나 ‘강세 자음’으로 번역하였는데 이 표현은 자음이 강세(accent)를 받는 것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다. 위 소리들은 JMK가 설명한대로 발음 기관이 긴장하면서 강조되어 발화되는 것이므로 ‘강세’라는 말을 붙이기보다는 ‘강조’라는 말을 넣어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나올 것이다.

7) 774쪽(용어 사례집)의 infix ‘삽입사’ → ‘접요사’(接腰辭)로. 영어 infix는 suffix ‘접미사’, prefix ‘접두사’와 같은 범주의 말이다. 즉, infix도 ‘접사’(affix)인 것이다. 언어학에서는 infix를 ‘접요사’라고 부르므로 JMK도 그렇게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8) 774쪽(용어 사례집)의 jussive ‘지시형’ → ‘사역형’으로. ‘지시형’이라는 말은 지시(demonstration)와 관련된 어떤 형태로 혼동될 소지가 있다. Jussive는 대개 3인칭을 향한 화자의 의지 표현이므로 ‘일을 시키다’라는 뜻의 ‘사역형’이 더 나올 것이다.¹⁷⁾

9) 356쪽의 particle ‘불변화사’ → ‘침사’로. 성서 히브리어의 particle 중에는 형태가 변하는 것들이 많다(예를 들어, \mathfrak{h}). ‘불변화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

17) 이 번역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사역형’은 causative를 번역한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0) 775쪽(용어 사례집)의 periphrastic ‘완곡 어법’ → ‘우언법’(迂言法)으로, ‘완곡 어법’은 euphemism의 번역으로 널리 쓰인다. 대개 ‘완곡 어법’이라 하면 감정을 해칠 수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완화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이다. ‘변소’를 ‘화장실’로 부르는 것 등이 그 예이다.¹⁸⁾ 일반 언어학에서는 periphrase를 ‘우언법’으로 번역하는데 『언어학사전』의 우언법의 정의는 JMK의 periphrasis에 대한 설명과 일치한다. 즉, 우언법이란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데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된 표현으로 가령 불어의 je partirai에 대한 Je vais partir라는 표현은 미래 표현의 periphrase이다.”¹⁹⁾

11) 김정우 교수의 용어 사례집은 JMK를 읽는 오늘도 중요하지만, 그 힘은 내일 더 분명해질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고전 히브리어학의 영어 용어들이 어느 정도 통일된 것에 비해 우리말에서는 그렇지 못하는데, JMK의 사례들이 학자들의 동의를 얻게 될 경우 한국 고전 히브리어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우 교수가 JMK에 주요 용어들을 그렇게 번역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를 신지 않은 것은 아쉽다. 예를 들어 casus pendens를 ‘고리형’이라고 번역한 것 뒤에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 상상해볼 수 있지만, 실제 사정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위에서 평가가 지적한 것들 중 몇 가지는 김정우 교수의 부연 설명이 있었다면 불필요했을지 모르겠다.

12)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잘못된 번역문,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문들이다. 일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람어는 초기에 시리아 사막의 부족들이 사용하다가 점차 동쪽과 서쪽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페르시아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 히브리어의 위치가 상당히 약화되었다”(4쪽, §2d)는 “아람어는…퍼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페르시아 시대에는 아람어가 팔레스타인에서의 히브리어의 세력을 크

18) 이정민, 배영남, 김용석, 『언어학사전』, 3판 (서울: 박영사, 2000), 295.

19) 이정민, 배영남, 김용석, 『언어학사전』, 637.

게 약화시켰다” 정도로,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사용된 언어가 발전한 것이다”(5쪽, §2e)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사용되던 언어가 발전한 것이다” 정도로, “그리고 불완전하게 보존된 벤시라서(Ben-Sira)와 같은 외경 등이 있다”(6쪽, §2e)는 “그리고 불완전하게 보존된 외경 벤시라서(Ben-Sira)도 있다” 정도로, “이 언어는… 일반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으로(fundamental) 중요하다”(7쪽, §2fa)는 “이 언어는… 일반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정도로 번역해야 한다. 때로 만나는 위와 같은 예들은 책을 우리말로만 읽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JMK의 용어와 문장 중 개선의 여지가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런 지적들에도 『성서 히브리어 문법』의 중요성과 의의는 여상하다. 히브리어 문법을 기초를 익힌 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해도 영어가 장애가 되어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신학도들과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성서 히브리어 문법』은 보다 높은 성서 히브리어의 세계로 뛰어오르게 할 수 있는 구름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귀한 책과 10여 년간을 씌름하여 한국 교회와 신학계에 큰 선물을 안겨 주신 김정우 교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 접수일 2013년 2월 23일, 수정일 2013년 2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3년 2월 27일